

충남역사문화연구원·국립한글박물관 공동기획전

한글

마음을
적극
나

Hangeul: Words from the Heart

2025. 3. 27.
~7.6.

충남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

충남역사문화연구원
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

국립한글박물관
National Hangeul Museu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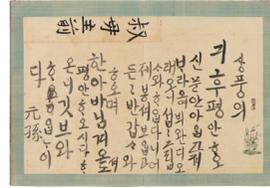
한글로 적은 가족의 정

《정조어필한글편지첩》

正祖御筆帖

18세기 | 23.6×34.8cm

보물 | 국립한글박물관 소장



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큰외숙모인 여흥 민씨(홍낙인의 처)에게 보낸 편지 등을 모아 만든 편지첩 가운데 어린 시절 정조가 작성한 한글 편지이다. 이 편지첩에는 정조가 원손(元孫)이었을 때부터 즉위 후 22년까지의 글씨와 편지 1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, 연령대에 따른 정조의 한글 필체의 변화를 볼 수 있다.

덕온공주의 나날

덕온공주당의

德溫公主 唐衣

1837년 | 앞길이 71cm, 뒷길이 71cm, 화장 69cm, 진동 17cm

국립민속유산 |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



덕온공주가 혼례를 올린 해인 1837년에 직접 입었던 당의이다. 자주색 걸감에 수(壽)·복(福) 무늬를 금실로 직조하였다. 덕온공주의 손녀 윤백영(尹伯榮)이 7세 때 이 당의를 줄여 입고 고종을 만나기 위하여 입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.

한글로 적은 효경

《자경전기》

慈慶殿記

19세기 | 32.0×528.0cm

국립한글박물관 소장



덕온공주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명으로, 아버지 순조의 『자경전기(慈慶殿記)』에 토를 달아 한글로 옮겨 쓰고 이어서 번역문을 적은 글이다. 자경(慈慶)은 자전(慈殿, 임금의 어머니)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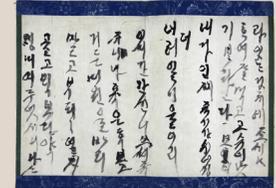
한글로 적은 가족 이야기

《선비유언》

先妣遺言

1855년 | 25.0×36.5cm

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(임창선 기탁)



한말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전재(全齋) 임헌회(任憲晦)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며 남긴 글이다. 어머니가 병환 중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임헌회가 교정 및 정서하여 정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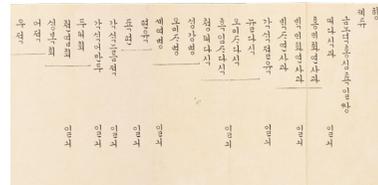
한글로 적은 그림

《망전단지》

望奠單子

19세기 | 33.7×160.6cm

국립한글박물관 소장



순원왕후가 막내딸 덕온공주의 제사에 보낸 음식 목록이다. '밤다식(栗茶食)', '오미자다식(五味子茶食)' 등 음식 단자에 적힌 가지각색의 화려한 상차림을 통해 순원왕후가 딸이 생전 좋아했을 떡과 과자를 제사에 손수 챙겨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.

한글 편지 체험



1. 체험하고 싶은 한글 편지를 고릅니다.
2. 한글 편지 아래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.
3. 옛 한글 편지가 현대어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.